

# 과 학 기 술 용 어 와

우리에게는 우리나라의 아름답고 고운 말과 글이 있으며 이 말과 글이 우리 민족의 삶속에 계승되어 왔다. 한 민족이 문화를 형성하는 기본되는 요인의 첫째가 언어에 있다고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언어란 단순히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만이 아니다. 생각의 방식을 이끄러가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언어는 그 민족의 창조적 정신활동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언어의 사용은 민족정신을 이루고 창조적 생활과 조예를 나타내는 활동과 일치하게 되는 것이다.

날말의 수 그리고 그 말의 줄기와 가지에서 지니고 풍기는 뜻이 다양화 되고 있다면 그 민족의 생각과 실현 활동이 언어에 정비례하여 활발해 지고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의사 전달의 신속과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용어가 만들어 지고 있으며 그들의 생각(과학)과 표현(기술)은 창출되고 문명의 기반이 굳어진다. 따라서 그들의 과학과 기술은 심화촉진 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수난의 역사 36년과 광복후 30년을 거쳐 오는동안 우리주변에서 사용되어온 온갖 언어와 용어를 받아들였다. 때문에 우리 고유의 말과 용어가 밀려나 언어 생활에 시달림이 컸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용어는 놀랍게 늘어 났으며 그중 절반이상이 한자어나 외래어가 차지하고 있음을 보게된다.

우리의 기술용어 속에는 선진국의 외래 용어가 많이 삽입되어 있다. 그것은 과학기술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어느정도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기술용어(새로운 과학과기술의 술어) 아닌 일반용어에 사용이 귀에 거슬림을 자주 느낀다.

내나라 좋은 말을 두고도 외래어를 끄집어 쓰고 외국어를 많이 알고 있음을 과시하려는 자랑인양 생각하는 풍조와 관념은 민족적 수치로 깨달아 고쳐야 할것이다. 과학기술의 도입과 모방은 우선 일차적인 수단(기술의 자립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받아들여진 외래 용어는 어디까지나 수단에 그쳐야 하고 우리의 열(정신)에 까지 영향을 받아서는 안되겠다.

그 사람 「헨섬해 퍼스트 인프렛션이 스마트 했다구」……이말은 우리말인가 외국어인가 외국인이 우리 말을 익히는 과정인가…… 우리말로 이정도 멋진 표현이 없다는 것인가?……「뉴앙스」가 다르지……마냥 그럴까?……

정부당국은 국어순화 운동의 기치를 들었다. 심의기구도 두고 전문가의 연구와 학자의 제언 등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못지 않게 여러분야에서 국어 순화운동의 호응은 폭넓게 일고 있다.

우리 과학기술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술용어의 순화를 위한 정화작업에 앞장서고

# 국 어 순 화 운 동

있다.

이미 73년도에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에서 4,700단어의 생활기술용어를 정화통일하는 “생활기술용어집”을 펴낸바 있다.

이 책이 만들어 지기까지 시안이 작성되어 사회각계에 자문을 받고 훌륭한 충고와 여론에 힘입어 재심조정하여 출간한바 각계의 좋은 반응이 있었다. 절판이 된지 오랜 지금도 계속 책자의 요청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언어는 항구적으로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시대적 변천과 생활 감정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며 발전하고 쇠퇴하며 사멸하는 것이다

언어는 또 고쳐지고 다듬어지고 해야 할 것이다. 국어의 정화는 시급한 것이다. 우리가 즐겨 쓰는 말이나, 가끔 쓰이는 말이라도 그 낱말들이 우리생활에 영향을 주고 보편화 되기 까지는 많은 날이 흘렀다는 것을 생각할때 우리의 말도 끈기있게 순화시켜 나가야 할 것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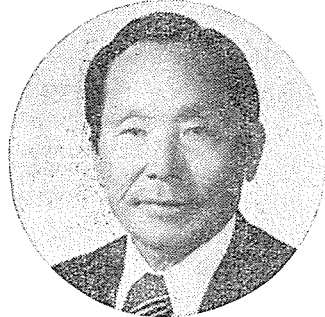
국어의 순화는 일시적으로 획일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고 본다. 한자(漢字) 말을 우리의 말로 바꾸어 쓸때 느낌의 저항을 고려하여 부드럽게 바꾸어 나가야 될 것이다. 서구 외래어도 마찬가지이다. 우선 토박이(국어)말로 바꾸기 힘들면 쉬운 한자말로 바꾸어도 무방하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다시 토박이 말에 어울리는 것을 골라야 할것이다.

요즘 방송이나 신문에 운동경기 실황 중계가 나온다. 어떤 용어는 그럴듯하다 아니 우리말이 더 실감이 난다. 그러나 어떤말은 궁여지책으로 꾸며 꾸두려 마친것 같아 거슬리는 것도 없진 않다. 말이란 배운대로 쓰게 마련이요. 익힌 것은 버리기 힘들다. 먼저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분들, 말과 글로서 일하는 분들이 이운동에 앞장서야 될 것이다. 그리고 온 국민이 조심 조심 우리 말을 찾아 쓰도록 국어순화운동의 풍토를 조성시켜 보자. 나자신 이글을 쓰면서 내 생각을 충분히 토박이 말(국어)을 못쓰고 있다고 솔직히 말한다. 그러나 국어순화 운동의 일원으로 뒤지지 않으려다.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는 “과학기술 용어 제1집”을 몇일새에 세상에 내놓게 된다. 이번에 발간하는 제1집은 기초과학, 공학, 농수산, 약학등 53개분야에 약 139,000단어가 정화, 개정, 통일 표준화 되어 있다.

이 사업은 정부당국의 지원 그리고 과학기술계의 참여와 연암문화재단의 협조로 이뤄지는 것이다.

이 역시 완벽하다고 할 수 없으나 국어순화의 한몫을 하고 있다고 본다.

우리 과학기술계 모두가 국어순화를 이뤄나가는 일에 계속 앞장 서줄것을 당부드린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김 윤 기